

대한제과협회, 해외 연수단 모집 독일 Iba쇼, 일본 재팬케이크쇼 참관

(사)대한제과협회(회장 김영모)에서 독일과 일본에서 열리는 해외 제과 관련 전시회의 참관단을 모집한다. 우선 독일에서 3년에 한번씩 열리는 〈2003 IBA 쇼〉는 전 세계 제과인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모이는 방대한 규모의 산업 전으로 제과기계 및 설비, 원부재료 등 제과업계 전반에 관한 최신 기술을 확인 할 수 있다.

〈2003 IBA 쇼 연수단〉의 일정은 10월 2일 출발, 프랑스의 유명 제과 교육기관 '벨루에 콩세이' 연수, IBA 쇼 참관, 독일 관광 등 6박 7일간 진행된다.

한편, 10월 8일 출발 예정인 〈2003 재팬케이크쇼 연수단〉은 3박 4일의 짧은 일정 동안 전시회 참관, 유명 기술인 세미나, 유명 점포 견학 등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7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재팬케이크쇼는 일본 최대, 최고의 양과자 전시회로 총 7부 11개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된다.

(사)대한제과협회와 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동경양과자협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신진 제과기술인들을 비롯해 그동안 실력을 갈고 닦아온 전국의 유명 기술인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최근에는 대만, 한국 등의 해외 기술인들도 출전하고 있어 국제적인 행사로까지 발돋움하고 있다.

▲ 문의 : 대한제과협회 02-2273-1830

프랑스 M.O.F 파스칼 몰리네스 초청 세미나 9월 24일 서울, 26일 광주에서 개최

대한제과협회는 9월 24일과 26일, 프랑스 유명 기술인 파스칼 몰리네스(Pascal Molines)씨를 초청해 양과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2000년 M.O.F 자격을 취득한 파스칼 몰리네스씨는 각종 경연 대회에서 입상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통 프랑스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24일 서울 세미나는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에서, 26일 광주 세미나는 광주제과기술학원에서 진행된다.

▲ 문의 : 서울 02-2277-0702, 광주 062-227-4040

월간베이커리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월드페이스트리컵 결산 세미나 주최

(사)대한제과협회가 발행하는 〈월간베이커리〉가 오는 11월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한다. 1만여 독자를 보유하며 제과 분야의 전문자로 자리매김해 온 〈월간 베이커리〉는 창간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 그동안 제과 발전을 위해 애써온 관련 업계 내외빈을 초청할 계획이다. 또한 창간 기념 행사로 2003 월드페이스트리컵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한국 대표 3인의 결산 세미나를 주최할 계획이다. 결산 세미나는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6회에 걸쳐 실시된다.

〈허미경〉

SIBA 부대행사로 포장 세미나 실시 16일부터 4일간 매일 다른 주제로 진행

(사)대한제과협회는 10월 16일부터 4일간 열리는 SIBA대회의 부대 행사로 〈상품 포장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포장 세미나는 매일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국내 최고의 강사를 초청, 대회 기간 나흘 동안 하루 1회씩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세미나 품목은 상자 포장을 비롯한 기본 포장법, 전통 포장법, 부직포를 이용한 포장법 등 다양하게 구성되며 담당 강사의 실연과 함께 참석자들이 함께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요시간은 각 회 4시간 정도이며 비용은 재료비를 포함해 회당 2만원이다. 참가 희망자는 대회 개최 전인 9월 27일까지 담당 지회 또는 중앙회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중앙회(02-2277-0702) 또는 각 지회 지부

■ 준비물 : 칼, 가위, 양면테이프, 스테이플러

〈세부 일정표〉

회차	날짜	시간	내용
1회	10/16 (목)	13:00~17:00	전통 포장 응용
2회	10/17 (금)	13:00~16:40	삼각·오각·원형 포장
3회	10/18 (토)	13:00~16:40	기본 포장 (사각·기본)
4회	10/19 (일)	13:00~16:40	부직포를 이용한 포장

제11회 SIBA 홍보 세미나 실시 서울을 시작으로 총 13개 도시 순회



(사)대한제과협회에서 10월 16일부터 열리는 제11회 서울국제빵·과자경진대회(이하 SIBA)의 제과 기술인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유제품수출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8일 서울

에서 시작돼 경기, 대전, 광주, 제주, 부산 등 총 13개 도시에서 14회에 거쳐 진행된다. 세미나 진행은 최신 인기 제품 실연을 중심으로 SIBA대회의 부문별 변경 사항과 포상 확대 등에 대한 안내가 함께 이루어졌다.

실연 강사로는 제과협회의 기술지도위원들이 초빙돼 크림치즈를 이용한 최신 인기 제품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19일 경기·수원, 20일 대전, 22일 광주, 23일 제주 순으로 열렸으며, 25일부터는 영남지역과 충청·강원·경기 일부지역에서 실시돼 9월 4일 인천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게 된다.

〈허미경〉

기술분과·지도위원 회의 개최 SIBA 및 단행본 제작 토의

지난 7월 30일 제11회 SIBA를 앞두고 (사)대한제과협회의 기술분과위원과 기술지도위원이 함께 모였다. 이날 회의에는 제과협회 김영모 회장과 행사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협회 기획팀이 함께 참석, 이번 대회의 변경 사항 전달과 각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변경 사항으로는 대회 명칭 변경과 후원업체의 추가, 늘어난 부대 행사, 경연부문 및 시상 내역 수정 등의 내용이 전달됐다.

김영모 회장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원활한 행사 진행으로 연결된다”며 대회 홍보와 변경된 규정에 관한 숙지를 당부했다. 또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위원들과의 의견 교류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 자리에는 SIBA의 부대 행사로 진행될 예정인 학술세미나에 관한 발표를 위해 혜전대학 조남지 교수도 참석했다. 이 밖에도 SIBA 기간 중에 배포될 서적 발행 및 기타 부대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안도 거론됐다. 〈허미경〉

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 개최 ‘식품접객업종 재분류’ 주제로 진행



지난 7월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식품접객업종의 재분류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각 업계의 대표들이 참석해 현행 분류를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과업계 측에서는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대구, 대전, 광주, 제주 등지에서 올라온 각 지회·지부 임원 20여명이 공청회에 참석해 제과업 종 분류를 위한 결의를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새로운 업종 분류에 관한 3가지 안건이 나왔으나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각 입장표를 표명하는 발표 시간을 통해 각 업계 대표들은 보다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이 시급함을 설명했다. 주최측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사항 검토를 거쳐 2차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밝히며 회의를 마무리졌다. 〈허미경〉

양천지회, 과우친목회 개최 임원 단합대회 마련하고 의기 투합



양천지회(지회장 이동택)가 지난 7월 2일 충남 장항에서 과우친목회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회 임원 20여 명이 함께 자리해 향후 하반기 사업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동택 지회장은 “올 하반기에는 제과인들의 축제인 SIBA 행사가 있으므로 더욱 하나로 뭉쳐 힘을 발휘하자”고 참석한 이들에게 당부했다. 양천지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화합을 다지며 회원 권익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자주 가질 예정이다.

마포지회, 한마음 대회 개최 지회 임원 및 가족 사기 양양

마포지회(지회장 송연환)가 지회 임원들의 사기 양양과 지회 발전을 위해 임원 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7일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에 위치한 ‘너와 나의 산장’에는 지회 임원 전원과 가족 50여명이 모여 지회 발



전을 위한 토론과 체육 대회, 노래자랑 등 다양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에 따라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권상범 제과명장이 초대돼 ‘제과인의 올바른 자세와 공부하는 제과인’이라는

주제로 유익한 강의를 펼쳤다. 특강을 통해 임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든 참석자들은 “새로운 마음 가짐을 갖게 하는 훌륭한 강의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주시지부 하계단합대회 개최 회원 60여명 참석, 우호증진 위한 계기 마련



제주시지부(지부장 박정기)가 8월 12일 교래리 그루터기가든에서 하계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박정기 지부장과 협회 회원 및 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단합대회는 회원들간의 우호증진과 상호협력을 위한 계기가 됐으

며, 참석자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부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7월 개최됐던 호두제품경연대회에서 빵부문 금상을 수상한 명당양과 부영익회원에게 재시상을 함으로써 회원들의 사기를 복돋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영모회장, 김영훈씨 기능올림픽대회 유공자 시장표창

8월 1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수여식 열려

김영모회장과 김영훈씨가 제3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유공자 시장표창을 받았다.

지난 8월 1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김영모회장은 ‘제과제빵’ 직종 지원업체상을, 김영훈씨는 동직종 선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여식은 서울시의 기능인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수여식 후 마련된 자리에서 김영모 회장은 “기능인에 대한 처우와 어린 기능인에 대한 후속적인 관리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또한 김영훈씨는 “이번 행사로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주〉

비로 잡습니다.

지난 호 〈협회 소식〉에 실린 성북지회 행사 내용에서

지회장님의 성함이 잘못 나갔기에 정정합니다.

현재 성북지회 지회장직에 재임중인 분은 김옥수씨입니다.